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저소득 뉴욕 시민을 위한 식품 혜택 증대 계획 발표

**영양 보조 프로그램 가구, 10월부터 1인당 약 36달러의 정기적인 월 급여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뉴욕에 14억 달러 이상의 추가 연방 자금 지원을 위한 혜택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영양 보조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뉴욕 시민들은 저소득 개인과 가정에 건강한 음식을 더 잘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방 비용 조정으로 인해 다음 달 혜택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뉴욕주 임시 장애인 지원 사무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의해 감독되는 SNAP에 등록 가구는 정기적인 혜택이 1인당 약 36달러 증가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뉴욕 시민들은 식품 구매를 위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역으로 그들은 더 저렴하고 영양가가 거의 없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강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혜택 증가는 뉴욕주 전역의 가정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줄 것이고, 이것은 결국 더 건강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회에서 채택된 2018년 농업 법안은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SNAP 혜택 산정에 사용된 계획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난 해, 연방 기관은 이 계획에 대한 데이터 중심 검토를 실시하여 45년 만에 처음으로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 시장과 소비자 환경의 현저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뉴욕에서는, 4인 가족이 새로운 계획에 따라 최대 680달러에서 835달러로 혜택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 증가로 인해 2022년 연방 회계 연도에 약 14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은 또한 표준 공제와 공익 수당의 달러 액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자격과 복리후생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가구의 월 총 소득에 반영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월 총소득 수준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SNAP 혜택의 수준을 조정하면서, USDA는 전국 현재 식품 가격, 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섭취하는 것, 식생활 지침, 그리고 식품 품목에 함유된 영양소를 평가했습니다. 이 기관의 재평가 결과 영양가 있고, 실용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식단 비용은 SNAP 가구를 위한 기존의 최대 수준의 식품 혜택보다 21% 더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SNAP 참가자 10명 중 거의 9명이 건강한 식단을 달성하는 데 장벽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장벽으로 건강 식품 비용을 꼽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를 통해 심지어 식료품 구입에 그들 자신의 기금을 기부하는 가정에서도, 현실적이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에는 식품 이익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월 시점으로 뉴욕주 전역에 걸쳐 약 280만 가구가 SNAP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연방 추정치에 따르면 SNAP 혜택은 지역 및 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SNAP 혜택의 모든 금액은 1달러당 약 1.59달러의 경제 활동을 유발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